

주간 전남 농업

VOL. 252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0월 첫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기원, 흑염소 사육 농가 성공모델 제시!!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도농교류 촉진 팜파티 성황리 개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장성군, '수확기 맞은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해외 농업정보 일본, 1세대당 구매량 감소하나 구매가격은 지속 상승



전남농기원, 흑염소 사육 농가 성공모델 제시!!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태풍의 영향으로 10월 3일 비가 오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0~17도, 최고기온: 22~25도)보다 조금 높다가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한우, 육계
- ▶ 산란계, 돼지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9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3

- ▶ 전남농기원, 흑염소 사육 농가 성공모델 제시!!
- ▶ 최고소득 품목...시설재배는 딸기, 노지재배는 포도

- ▶ 농촌진흥청, 장마철 앞두고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
- ▶ 마분 퇴비, 정해진 양만 겨울 사료작물에 뿌리세요
- ▶ 외래잡초 개썩갓 ‘꽃 피기 전 방제해야 확실’
- ▶ 약용작물 ‘지황’ 수량 많은 품종으로 자급률 ‘쑥쑥’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2

- ▶ 전남농기원, 도농교류 촉진 팜파티 성황리 개최
- ▶ 봄 파종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다청옥’신청하세요
- ▶ 병에 강한 초록색 배 ‘그린시스’ 보급 늘린다
- ▶ 돼지 등지방 발달 관여 유전자 조절 인자 찾아
- ▶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으로 전남 관광 저렴하게
- ▶ ‘28일 농업박물관서 청년 쌀요리 경연
- ▶ 김 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긴급 점검
- ▶ 전남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 확 달라졌어요
- ▶ 전남농기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임대농장 설치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2

- ▶ 담양군, ‘축산업 경쟁력 향상’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 ▶ 여수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 ▶ 곡성군, 블루베리 연구회 선진지 현장교육 실시

- ▶ 보성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위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 ▶ 화순군, 복숭아 연합사업 평가회 ‘성료’
- ▶ 화순군,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개선으로 소득 창출
- ▶ 장성군, ‘장성사과’ 수출 위한 종합컨설팅
- ▶ 장성군, ‘수확기 맞은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 ▶ 신안군, 1004섬 신안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사업비 30억 확보'

7. 해외 농업정보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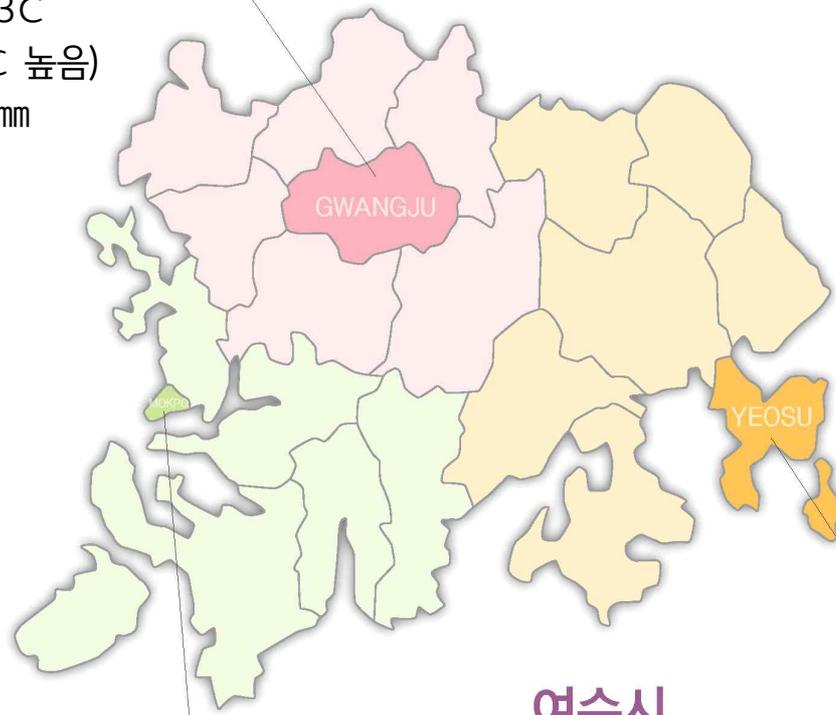
- ▶ 일본, 1세대당 구매량 감소하나 구매가격은 지속 상승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8. 농식품 빅데이터(기상)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4

- ▶ 국립환경과학원
- ▶ 기상청 날씨누리
- ▶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1.9℃
(평년대비 3.6℃ 높음)
- 최고기온 : 25.4℃
(평년대비 1.3℃ 높음)
- 최저기온 : 18.3℃
(평년대비 4.6℃ 높음)
- 강 수 량 : 2.4mm



목포시

- 평균기온 : 21.4℃
(평년대비 2.5℃ 높음)
- 최고기온 : 24.3℃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18.6℃
(평년대비 3.5℃ 높음)
- 강 수 량 : 2.5mm

여수시

- 평균기온 : 21.9℃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24.9℃
(평년대비 1.6℃ 높음)
- 최저기온 : 18.9℃
(평년대비 2.4℃ 높음)
- 강 수 량 : 2.2mm



한우

도축 및 전망 : 10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

- 이력제 자료를 이영한 향후 출하가능 마릿수 추정 결과, 10월 도축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10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18,189원)보다 하락한 지육kg당 17,300~17,900원으로 전망된다.



육계

수급 및 가격 전망 : 9월 병아리 생산 전년보다 증가

- 9월 병아리 생산량은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한 7,284만 마리로 추정된다.
- 10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육계 입식이 늘어 전년보다 5.1% 많은 8,482만 마리로 전망된다.
- 10월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보다 5.6% 증가한 8,789만 마리로 전망된다.
- 10월 생계유통가격은 도계마릿수 증가로 전년(1,405원)보다 낮은 kg당 1,100~1,300원으로 전망된다.



산란계

❖ 사육 마릿수 전망 : 10월 산란용 닭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0월 6개월령 이상 닭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260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개월령 이상 닭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2.3% 감소한 7,115만 마리로 전망된다.

❖ 생산량 및 가격 전망 : 10월 계란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0월 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1,042원) 보다 높은 1,050~1,20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되나, 평년(1,215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계란 가격은 최근 산란 성계 도태 증가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계 도태가 예년보다 감소할 경우 계란 산지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돼지

사육 마릿수 전망 : 10월 도매가격 상승 전망

- 10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158~161만 마리로 전망된다.
- 10월 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돼지 도축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한 4,000~4,200원/kg으로 전망된다.

10월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구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등급판정 마릿수(천 마리)	1,580~1,610	1,686	-6.3~-4.5
도매가격(원/kg)	4,000~4,200	3,911	2.3~7.4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10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가격 상승으로 전년(2만 8천 톤)보다 감소한 2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10월 돼지고기 수입량 전망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평년	전년 대비(%)
수입량(천 톤)	26.2	27.7	18.8	19.1	-5.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09. 30.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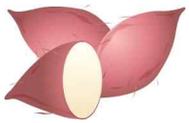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0kg	46,600	48,52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05	46,715	38,753	↑	20.2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35kg	197,800	197,600	↑	1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79,800	154,933	↑	27.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kg	28,600	28,000	↓	1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300	35,000	24,523	↑	16.6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0kg	20,600	22,400	↓	5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150	46,000	30,900	↓	33.3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kg	19,600	18,400	↑	7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500	11,400	10,563	↑	85.6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8kg	4,300	5,000	↓	5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50	10,600	8,807	↓	51.2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0개	49,333	50,667	↓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167	56,167	45,117	↑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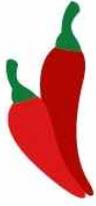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0개	17,400	26,400	↑	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750	16,750	13,913	↑	25.1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30kg	440,000	470,000	↓ 3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6,500	646,200	496,000	↓ 11.3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kg	49,600	53,400	↓ 1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600	60,700	42,763	↑ 16.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20,000	120,000	↓ 25.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0kg	10,200	11,000	↓ 3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300	15,050	19,417	↓ 47.5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0kg	37,800	37,200	↓ 5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000	77,300	53,930	↓ 29.9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kg	1,880	2,080	↓ 3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25	2,775	2,074	↓ 9.4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5kg	27,000	38,600	↓ 2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000	38,100	27,350	↓ 1.3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개	16,400	15,400	↓ 2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250	21,900	12,780	↑ 28.3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kg	30,800	27,600	↓ 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100	44,800	32,643	↓ 5.6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5kg	23,200	17,600	↓ 1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00	27,100	22,130	↑ 4.8

과일류

사과(홍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kg	28,200	28,200	↓	3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450	46,700	36,918	↓	23.6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5kg	32,400	35,400	↓	28.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8,750	45,550	40,907	↓	20.8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kg	41,600	41,6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300	42,000	43,267	↓	3.9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0g	8,805	8,935	↑	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46	8,278	7,808	↑	12.8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kg	5,144	5,117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07	5,236	5,115	↑	0.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30kg	499,600	503,0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1,600	500,600	517,167	↓	3.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kg	14,600	16,2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400	16,650	14,377	↑	1.6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2kg	8,200	9,0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875	7,975	8,377	↓	2.1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00g	2,186	2,109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29	2,136	2,109	↑	3.7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30개	5,343	5,299	↓	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36	5,557	5,644	↓	5.3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30)	1주일전 (9/23)	전년대비	
1L	2,615	2,615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9	2,620	2,554	↑	2.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9. 30.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90	5,636	5,608	↓ 0.8	↓ 0.3
거세	6,810	7,276	6,948	↓ 6.4	↓ 2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51	3,153	3,203	↑ 3.1	↑ 1.5
수	4,024	3,962	4,142	↑ 1.6	↓ 2.8

육우(천원/60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3,354	3,34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4		↓ 9.5

젖소송아지(천원/7일령)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3,98	39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51.3

돼지(천원/110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417	49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8		↓ 8.8

육계(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1,296	1,29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2		↓ 6.8

계란(원/특란10개)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1,085	1,13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5		↓ 9.7

오리(원/kg)

구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암	2,300	2,3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4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전남농기원, 흑염소 사육 농가 성공모델 제시!!

- 흑염소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사회 개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해남군 화원면 하모니농장에서 전남지역 흑염소 사육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염소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 금번 연사회가 진행된 하모니농장은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을 통해 사양관리 개선으로 새끼염소 폐사율이 10%이하로 감소했고, 흑서기 고온 피해를 최소화해 한 마리당 일일 증체량 150g 이상을 달성해 출하체중을 4~5kg 증가 시켰다.
- 또한 예초 장비를 활용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증대해 조사료비를 30% 절감했으며, 어미 염소에게 청초를 급여함으로써 빠른 영양회복으로 임신 및 수정율을 향상 시켰다.
- 한편 가공식품(진액, 소시지, 햄)등의 개발로 1두당 20만 원의 부가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까지 획득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 이러한 하모니농장(대표 김주영)의 새로운 도전은 향후 흑염소 사육 농가가 나가야할 새로운 모델로, 도 농기원에서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경진을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최고소득 품목...시설재배는 딸기, 노지재배는 포도

- 농촌진흥청, 2018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8년산 주요 농산물 52품목(쌀, 콩, 축산물 등 일부 제외)에 대해 5,3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과수·화훼 재배농가는 전년대비 소득이 증가하였고, 식량작물·시설채소는 소폭 증가, 노지채소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0a(1,000m²)당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시설딸기(축성)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1,173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작물 중 딸기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은 축성오이(1,165만 원), 장미(1,050)였으며, 노지작물 중에서는 포도(492), 배(354), 복숭아(346) 등 과수가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최근 3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식량작물인 겉보리(17만 원), 밀(17만 원), 쌀보리(15만 원) 등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동시간당 소득 면에서는 고랭지무(47천 원/시간), 시설포도(38), 고랭지배추(33), 쌀보리(31), 가을배추(28) 등 노지채소 및 식량작물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노지채소는 포전거래로 수확노동 절감, 식량작물은 기계화 등에 의한 노동력 감소)
-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가한 품목은 27개이고, 소득이 감소한 품목은 21개로 분석되었다.
- 전년대비 소득이 50% 이상 크게 증가한 품목은 시설고추(59.2%), 고랭지무(53.0%) 등이었다.

- 시설고추는 기상이변에 의한 단수는 하락 하였으나, 단가 상승 및 에너지 절감기술로 비용이 절감(11.7%)되어 소득은 59.2% 증가하였다. 고랭지무는 단수는 전년대비 18.9%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공급량 감소(20.4%)로 단가가 상승(70.3%)하여 소득이 53.0% 증가하였다.
- 반면,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품목은 겉보리(Δ 43.8%), 쌀보리(Δ 32.9%) 등이었다. 겉보리는 단수 증가(6.7%) 및 재배면적 증가(40.8%)로 단가가 크게 하락(24.7%)하여 소득이 43.8% 감소하였다. 쌀보리는 기상이변으로 단수가 감소(19.2%)하였으며, 재배면적 증가(97.6%)로 단가가 하락(0.2%)하여 소득이 32.9% 감소하였다.
- 농촌진흥청 우수곤 농산업경영과장은 “2018년은 기상악화로 농업경영 여건이 어려웠으나, 농가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년대비 소득증가 품목이 많았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영농설계와 경영으로 품질과 수량을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농가에 맞는 출하처 발굴과 상품화가 요구된다.” 라고 말했다.
- 농산물 소득조사는 연구 개발은 물론, 농가 상담이나 농업정책 의사 결정, 영농손실 보상 등에 활용되며,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간행물 ‘2018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으로 발간되어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과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rda.go.kr)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장마철 앞두고 농작물 사전관리 당부

- 집중호우 · 강풍 피해 예방 위해 물 빠짐 길 · 오래된 시설물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장마를 대비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를 당부했다.
- 지난해 집중호우와 강풍(태풍 포함)으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면적은 46,083ha로 2017년 4,674ha보다 약 9.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물 빠짐 길) 정비와 받이랑을 높게 하는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요령을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벼는 농수로에 발생한 잡초를 없애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길을 만들어 주는 등 사전 정비를 한다.
- 논두렁에 물길을 만들 때에는 물살에 흙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로 땅 표면을 덮어주거나 논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량형 물꼬' 등을 설치한다. 또한 산간지의 계단식 논에서는 여러 곳에 물길을 크게 만들도록 한다.
-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물에 잠겼을 경우, 벼 잎 끝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논물을 빼 공기와 접촉 시킨다. 물이 빠진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은 물 빠짐이 좋도록 이랑을 높인다.
-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예방한다. 많은 비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 작물의 뿌리가 땅 위로 나왔을 경우에는 신속히 흙을 덮어주고 바로 세워준다.

- 경사지에 위치한 과수원은 빗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집수구를 설치하고,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 토양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 마른날이 계속되다가 폭우가 내리면 과실수의 양·수분 흡수가 높아져 열매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
- 수확기에 다다른 열매가 떨어지면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덜 익거나 상처가 난 열매는 병해충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땅에 묻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 강풍과 비바람이 예보될 경우에는 미리 가지를 유인해 묶어주고, 원줄기에는 지주목을 설치해 쓰러짐을 대비 한다.
- 오래된 축사는 축대와 지붕, 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축사 안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점검한다.
- 특히 가축 감염과 축사 내에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방제장비와 소독 약제를 준비하고, 사료가 물에 젖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고, 비닐 교체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또한 시설하우스 안에 설치한 전기·전자 장비를 미리 점검해 누전을 방지한다. 강풍이 예보될 경우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골재와 비닐이 밀착될 수 있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마분 퇴비, 정해진 양만 겨울 사료작물에 뿌리세요

- 표준 질소시비량, 마분 퇴비와 화학비료 각 50%씩 사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마분(말똥) 퇴비를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재배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국내 말 사육 마릿수는 27,243마리며, 그 중 제주지역의 말은 15,656마리로 전국의 약 57.5%를 차지하고 있다.
-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제주지역의 토양은 고유한 특성으로 물빠짐이 좋아 용탈수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때 필요한 질소의 양(표준 질소시비량)을 기준으로 마분 퇴비 사용량을 달리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건물수량과 용탈수 내 질산태 질소의 양을 분석했다.
- 마분 퇴비와 화학비료를 50%씩 혼용했을 때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건물수량은 화학비료만을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헥타르(ha)당 약 20톤 정도의 수량을 보였다.
- 또한 용탈수의 질산태 질소 함량은 화학비료만 사용했을 때보다 50%씩 혼용했을 때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재배에 필요한 질소의 양은 헥타르당 200kg 정도이고 마분 퇴비의 질소 총 함량은 약 1% 내외다.
- 가을철 밀거름으로 마분 퇴비를 헥타르당 약 10톤 정도 사용하고 이른 봄에 화학비료를 표준 질소시비량의 절반 수준으로 뿌려주면 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외래잡초 개썩갓 ‘꽃 피기 전 방제해야 확실’

- 농촌진흥청, 겨울작물 재배지 · 과수원 개썩갓 방제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작물 재배지나 과수원에 발생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외래잡초 개썩갓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방제법 등을 소개했다.
- 1개썩갓은 유럽이 원산지인 외래잡초로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한 한해살이 겨울잡초이다. 9월 말부터 발생해 이듬해 4~5월에 열매를 맺으며 씨앗을 많이 맺고 민들레처럼 씨앗에 털이 있어 바람에 잘 퍼진다.
- 발생하면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기계 수확을 방해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흰가루병을 매개하기도 한다.
- 농촌진흥청이 2017년 전국 농경지 12,568지점을 대상으로 농경지 내 개썩갓 분포를 조사한 결과, 개썩갓은 전국 농경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남 신안과 무안, 제주도, 경북 청송과 영천, 강원 태백 인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전남의 경우, 개썩갓이 마늘과 양파 등 겨울작물 재배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제주는 따뜻한 기후로 거의 모든 경작지에서 개썩갓을 볼 수 있었다.
- 경북은 겨울작물 재배지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등 과수원에서도 개썩갓이 발생했다. 강원에서는 봄·가을배추 재배지에서 발생해 개썩갓이 서늘한 고랭지 기후에서도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썩갓은 제초제에 의해 죽으면서도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개썩갓 꽃이 피기 전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려야 한다.
- 마늘과 양파 등 겨울작물 재배지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토양처리 제초제(리뉴론수화제, 알라클로르유제 등)를 적용 작물에 맞게 뿌리면 개썩갓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 밭에 비닐을 씌우기 전 리뉴론수화제(마늘·양파), 리뉴론·티오벤카브유제(마늘), 에스-메톨라클로르·티오벤카브입제(마늘), 알라클로르유제(양파)를 뿌리면 개썩갓 발생을 막을 수 있다.
- 펜디메탈린이나 나프로파미드는 개썩갓 방제효과가 낮기 때문에 이들 제초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과수원에서는 재배하고 있는 과수에 등록된 비선택성 제초제를 개썩갓 꽃이 피기 전에 뿌리면 된다.
- 농촌진흥청은 ‘개썩갓 발생실태 및 관리요령’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난해 9월 마늘, 양파 주산단지를 비롯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1,000부를 배포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네이버 밴드 ‘스마트 기술지원정보(<https://band.us/band/12871707/post/1268555967>)’에서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약용작물 ‘지황’ 수량 많은 품종으로 자급률 ‘쑥쑥’

- 10년 새 32%에서 66%로 증가... 병 강한 새 품종 선보여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약용작물 ‘지황’의 국산 자급률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 경옥고의 주재료인 ‘지황’은 한방에서 몸을 보하고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약재이다. 생지황, 말린 건지황, 찌서 말린 숙지황 등으로 가공해 판매 중이다.
-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재배가 어려워 많은 물량을 중국에 의존해왔으나, 농촌진흥청이 11품종을 개발하며 2008년 583톤이었던 국내 생산량은 10년 만에 3배 가까이(1,686톤) 늘었다. 같은 기간 국산 자급률도 32%에서 66%로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은 25일 전북 정읍에서 자급률 향상을 이끌 새 품종 ‘황강’과 앞서 보급한 ‘다강’ 품종을 농가에 소개한다.
- ‘황강’은 뿌리가 굵고, 뿌리 수가 많으며, 겉모양이 우수하다. 대조 품종(지황 1호)보다 수량이 7% 많고 뿌리썩음병에 강한 장점이 있다.
- ‘다강’은 대조 품종(지황 1호)보다 수확량이 15% 많고, 병충해에 강해 농가 선호도가 높다.
- 농촌진흥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문화센터에서 품종 소개 행사를 마친 뒤, 가까운 재배 포장에서 ‘황강’, ‘다강’에 대한 현장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도농교류 촉진 팜파티 성황리 개최

- 화순 남면 '하나들농장' 팜파티 큰 호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식품 판매확대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팜파티를 화순군 남면 하나들농장(대표 박나미)에서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가 30명과 도시소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슬래와 함께 웃어봐요'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 도 농기원이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에 개발한 '팜파티'는 전국으로 보급하여 대표적인 도농 교류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날 팜파티에 공동으로 참여한 소규모 가공농가 회원들은 지난 2018년 도 농기원에서 실시한 가공식품 판매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농업인들이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해 결성된 모임체이다.
- 특히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기존의 제품을 개선한 다양한 농식품(우슬식혜, 돌배차, 산수유청, 홍화누룽지, 황금유자 등) 20여종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 아울러 소비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쁜 송편 만들기, 모듬야채 피클 만들기 등의 체험이 이루어져 참여자들이 직접 새알을 팔죽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봄 파종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다청옥’신청하세요

- 봄 파종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다청옥’신청하세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자급조사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봄 에 파종할 국산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다청옥’ 종자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 국내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 면적은 2018년 기준 1만 3천 헥타르(ha) 정도이다. 젖소를 기르는 낙농 및 축산 농가가 많은 경기·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 ‘광평옥’은 말린 수량이 단위면적(ha) 당 약 20톤으로 외국 품종보다 생산량이 15% 많고 쓰러짐에 강하다.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에도 강하다.
- 수확기(황숙기) 이후 늦게까지 이삭 아래 잎이 푸르게 유지되는 후기 녹색성이 우수해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다. 외국 품종에 비해 가격도 29~43% 정도 저렴하다.
- ‘다청옥’은 말린 수량이 단위면적(ha) 당 약 24톤으로 외국 품종보다 14% 많다. 수확기에 이삭 아래 잎들이 늦게까지 푸르러 사료용으로 적합하다.
- 다른 품종보다 이삭길이가 19cm로 길고 쓰러짐에 강하며, 줄기와 잎 부분의 조단백질 함량이 많아 영양가치도 높다.
- ‘광평옥’, ‘다청옥’ 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전국 농협(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http://www.naknong.or.kr>, 02-588-7055)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000)으로 10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2~3월에 종자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병에 강한 초록색 배 ‘그린시스’ 보급 늘린다

- 검은별무늬병 감염률 3.3% 수준... 수출 유망 품종으로 육성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병에 강하면서도 색이 특이한 국산 배 품종 ‘그린시스’의 보급을 확대한다.
- ‘그린시스’는 9월 중순에서 하순께 생산하는 품종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012년 개발했다.
- 맛이 담백하고(당도 12.4°Bx) 신맛이 없으며, 검은별무늬병에 강해 작물보호제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린시스’의 검은별무늬병 감염률은 3.3% 수준으로, 도입 품종인 ‘신고’의 감염률 69.4%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
- 과실 크기는 성인 주먹만 한 중간크기(470g)이고, 껍질 색은 녹색이며, 상온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로 길어 기존 품종과의 차별화를 통한 수출 유망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 2017년 아랍에미리트 농식품박람회에서 시식회를 연 결과, 풍부한 과즙과 아삭한 맛으로 현지 바이어(구매상)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다. 경북 울산에서는 수출을 목표로 올해 8헥타르(ha)의 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다. 농촌진흥청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맛 평가를 한 결과,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껍질 색이 특이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해 줄 것으로 평가받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돼지 등지방 발달 관여 유전자 조절 인자 찾아

- 성장단계에 따른 유전자발현 조절 인자 103종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돼지 등지방 조직의 성장단계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를 찾았다.
- 양돈산업에서 돼지의 등지방은 육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로 돼지 성장단계(10주령, 26주령)별 등지방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 그 결과, 성장단계에 따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103종의 인자를 찾았다.
- 돼지의 유전자는 약 25,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찾은 인자에 의해 540여 종의 유전자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유전자들은 지방합성과 관계되는 기능인 생합성과정 조절, 세포의 신호 전달, 세포 단백질 변형, 질소 화합물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인자에 의해 지방조직 발달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현 동물유전체과장은 “돼지의 성장단계나 환경에 따라 유전자 기능을 조절하는 요인을 찾고, 그 체계를 이해하면 돼지의 육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돼지 성장에 따른 다양한 영향인자를 밝혀 성장 기작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으로 전남 관광 저렴하게

- 전남도시군 운영 40개 관광지 무료 또는 최대 50% 할인 -

- 2019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하나면 박람회장 관람은 물론 박람회 기간 중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를 무료 또는 최대 50% 할인된 입장료로 방문할 수 있다.
-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사장 김영록)는 올 행사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끌고 전남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 박람회 기간 동안인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입장권 소지자는 남도의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완도수목원, 아이들의 해양수산과학 이해도를 높여줄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등 전라남도를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40개 관광지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 전광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올 가을 박람회 입장권 하나로 20개 나라 380개 기관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업박람회뿐만 아니라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의 아름다운 주요 관광지까지 한꺼번에 즐기길 바란다”며 “관람 편의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관광지 할인 사항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www.i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28일 농업박물관서 청년 쌀요리 경연

- 20개 팀 참가...남도음식문화 우수성 홍보쌀 소비 촉진 기대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관장 이종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농업박물관 쌀 문화관에서 '2019 청년 쌀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청년 쌀요리 경연대회는 광주·전남·전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쌀요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남도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쌀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본선에 앞서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2인 1조 20개 팀이 참가해 쌀을 주원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 경연대회를 치른다.
- 심사 배점은 음식의 창의성 30점, 상품성 30점, 작품성 20점, 전문성 20점 등이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요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 대회 입상자에게는 대상 100만 원, 금상 60만 원, 은상 2명 각 40만 원, 동상 3명 각 20만 원, 장려상 3명 각 10만 원 상당의 부상과 전라남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 부대행사로 선착순 200명의 접수를 받아 연잎밥 만들기, 쌀엿강정 만들기 등 무료 체험을 실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www.jam.go.kr)을 참조하거나 농업박물관(061-462-2752) 또는 (사)문화사업진흥회(대표 한정화)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



김 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긴급 점검

- 24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통해 최고 수준 방역 당부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에서 4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남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소독을 매일 실시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약품 등을 지원했다.
- 또한 지난 17일 경기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가동, 이동통제초소를 7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거점소독시설도 5곳에서 22곳으로 확대했다. 다른 지역 돼지 및 돼지고기, 분뇨의 전남 반입 금지조치, 새끼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 금지조치, 밀집지역 농가초소 운영(6개소), 양돈농가 전면 모임금지, 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 매일 일제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 확 달라졌어요

-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입점업체와 매출액 등 크게 증가 -

- 전라남도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남도장터(www.jnmall.kr)’의 운영업체를 변경한 결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입점 업체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는 남도장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경쟁계약 방식을 통해 운영업체를 (주)리얼커머스로 선정했다. (주)리얼커머스는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전문성을 가진 대전에 소재 업체다.
- 운영 방식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던 것을 전라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관리감독이 원활토록 하고,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을 강화토록 개선했다.
- 지난 4월부터 누리집 가독성과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 개편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 이를 통해 5월부터 본격 운영한 ‘남도장터’는 8월 말 현재 매출액이 27억 원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매출액 5억 원을 훨씬 웃도는 판매고를 올렸다. 추석 명절 기간인 8월 한 달만도 매출액 9억 원을 기록했다.
- 이는 쇼핑몰 입점 상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체국과 롯데슈퍼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17개사와 전략적 제휴 등 유통채널을 다각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남도장터’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전라남도는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모바일용 앱 및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과기부의 국가디지털 전환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유통판매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 입점업체의 온라인 판매 마케팅 지원도 강화했다. 모바일 판매 광고, 상품 상세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해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해 입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또한 중국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로 회원 수 6천400만 명이고 하루 구입자가 100만 명 이상인 ‘한두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남도장터’ 쇼핑몰과 연계해 판매할 계획이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 구매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식품 쇼핑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소농 생산자도 손쉽게 ‘남도장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농특산물 상품 구매 및 입점 문의는 (주)리얼커머스 (070-7816-8510)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24)로 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임대농장 설치

- 양액기 조작, 온실환경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등 시운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해 일정 기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 농기원은 청년 임대농, 시군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에서 양액기 조작 등 시연회를 개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시연회는 온실 내부 복합 환경제어와 양액기 조작 등을 시운전 해보고, 창업보육 과정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이정현 교수와 경영실습 청년농업인들은 양액 조성표 작성 및 딸기 정식 등 현장 실습을 병행했다.
- 또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 온실은 비닐하우스(10-단동-6형)형태 총1,535㎡ 규모 3개동으로 조성되어 딸기와 엽채류 재배에 나섰다.
- 스마트 경영실습온실은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유지하도록 온실 내 온습도, 빛, CO2 수준 등 환경을 제어하고 외부 기상장비를 설치하여 일사량, 강우 등 외부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영양분 공급, 난방기 가동, 측창개폐 등 자동원격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정찬수 농촌지원과장은 농업·농촌의 현실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스마트농업이라고 말하고, 2020년까지 전남지역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담양군, '축산업 경쟁력 향상'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 오는 30일까지 신청자 모집, 축산기술분야 2개 사업 3개소 대상 -

- 담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가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2개의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총 사업비 60,000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사업내용은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2농가, 미량광물질 활용 적소 생산성향상 시범사업 2개소 2농가 등 2개 사업 3개소를 지원한다.
-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희망농가는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담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최종 사업 대상자는 현지평가와 선정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농업인상담소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담양군



여수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 방역대책 상황실·거점소독시설 가동, 엑스포여객선터미널에 대인소독기 설치
- 축산 농가 잔반 급여 금지, 1일 1회 예찰, 양돈 농장 주변 소독 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여수시가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는 지난 17일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자 농업기술센터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 지난 2일에는 엑스포여객선터미널에 대인소독기를 설치해 감염 방지에 힘쓰고 있다.
- 시는 앞으로 축산 농가에 잔반 급여를 금지하고, 1일 1회 예찰 활동에 나선다.
- 축산차량 GPS 부착과 운영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축협 공동방제단과 합동으로 양돈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입국 신고와 소독 등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에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돼지고기 소비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현재 여수시에는 27개 축산농가에서 돼지 1만 5107수를 기르고 있다.

*출처 : 여수시



곡성군, 블루베리 연구회 선진지 현장교육 실시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23일 블루베리 농업인연구회원들과 함께 선진농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 이번 벤치마킹은 블루베리 조기재배 기술 및 블루베리 신품종 정보 수집을 위해 보성군 진선블루베리 농장과 무안군 무시아 블루베리 농장 두 곳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장 체험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교육에 대부분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 곡성군은 블루베리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연중 출하시스템을 갖추는 등 블루베리 조기출하 면적 확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다겹 보온 커튼, 난방기, 관비기 등을 지원했다. 또한 전정기술지원단 운영, 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 등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전폭 지원하며 블루베리 조기출하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곡성군 블루베리농업인 연구회 박광순 회장은 “효율적인 조기 재배시설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블루베리 토양관리 대한 정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벤치마킹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견학을 통해 블루베리 조기출하 발전 방안과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군 블루베리 농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곡성군



보성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위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 보성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 등 90여 명과 함께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2019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가졌다.
- 이번 평가회는 벼농사 후기 마무리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관내 시범사업장, 전남농업기술원 시험포장 현장학습을 통해 품종별 작황 비교평가와 학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소식재배 화판 및 실물모형을 평가회장에 전시해 참여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벼농사 종합평가회’는 벼농사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의 보완대책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기술을 도입·보급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 김철우 보성군수는 평가회에서 “올해는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 작황이 작년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보성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저비용 고소득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품질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고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복숭아 연합사업 평가회 ‘성료’

- 수도권 소비자 선호도 높아...향후 판로확보 청신호 -

-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농협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천국)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순 복숭아 재배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복숭아 연합사업에 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 군은 평가회에서 화순의 대표 과일인 복숭아의 판로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복숭아 연합사업의 결과를 농업인에게 설명했다. 공동선별과 공동판매의 필요성도 안내하고 내년 화순 복숭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농업인과 함께 논의했다.
- 화순군은 전남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남 최대 복숭아 주산지다. 장기보관이 어려워 원거리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을 깨고 공동선별을 통해 엄선된 품질의 복숭아를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했다.
- 연합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화순 복숭아는 공판장 가격 2251원(kg당) 대비 평균 57% 높은 3544원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화순 복숭아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지속적인 판매가 기대된다.
-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는 화순 복숭아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첫해였다”며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화순군



화순군,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개선으로 소득 창출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개선사업 2개소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다
-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개선사업은 화순에서 재배하여 가공한 상품을 농식품 소비계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합리적 포장디자인과 포장재 개발로 신뢰확보와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초록농장과 남순엄마의 장독대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 초록농장 아스파라거스즙은 기존 파우치와 박스보다 산뜻함과 아스파라거스의 신선함이 더 돋보이는 포장재로 바뀌어 기존 고객들의 호응도 좋아 온라인몰을 통한 매출액이 기존대비 18%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 또한 2종 장류과 11종 장아찌를 가공상품으로 판매하는 남순엄마의 장독대에서는 파우치형 소포장과 유리병 포장으로 포장재를 개선하여 기존 판매처가 주로 화순읍 로컬푸드와 직거래였으나 광주광역시로컬푸드, 장흥군로컬푸드, 마트, 직거래, 세종종합청사 행사장 판매 등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매출액이 30%이상 상승하였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상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화순군의 농산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장성군, '장성사과' 수출 위한 종합컨설팅

- 장성사과 동남아 수출 위한 기관합동 종합컨설팅...사과농가 역량 강화 -

- 장성군이 '장성사과'의 우수성을 동남아에 알리기 위해 지역 사과 재배 농가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 장성군은 지난 19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열린 종합컨설팅은 수출절차, 지원제도, 경제성분석 등 수출 전반에 걸친 교육이 진행된 후 컨설턴트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의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들은 토의 시간을 통해 사과 수출 애로사항과 수출 관련 문제, 수출 우수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수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요구되며, 현재 장성사과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수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잉 생산된 과일을 수출할 경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은 사과 주산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착색조건이 취약한 남부지역에 적합한 품종인 '노란사과'를 2018년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과수 전정 헬퍼(helper)'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색다른 정책을 펼쳐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장성군



장성군, '수확기 맞은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 올 가을 안심농사를 위한 농작물 생육후기 물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당부 -

- 장성군이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안전한 농약 사용 및 열과 방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과와 감 등 과수는 과실의 자람이 끝나면서 성숙에 들어가 당분이 높아지므로 수확 20일 전부터 물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 주변에 점무늬낙엽병, 갈색무늬병, 겹무늬씩음병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예찰하고 과실에 병반이 보일 때는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수확기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태풍으로 부러지거나 찢어졌던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바르고,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채소와 같은 밭작물이 쓰러졌을 경우 신속히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한다. 또한 생육이 불량한 포장에는 병해충 방제를 기준에 맞게 실시한다.
- 태풍 피해로 침수된 벼의 경우 가능한 일찍 물을 빼주고, 식물체에 묻은 흙양분과 이물질은 깨끗한 물로 씻어준 후 새 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활력을 촉진한다. 이삭도열병 등 병해가 우려되는 논에는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 논물을 뺄 때는 시기가 중요하다. 벼농사 논물을 너무 일찍 빼게 되면 벼알이 잘 여물지 않아 금간 쌀이나 푸른 쌀 등이 많아져 품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벼 베기에 지장이 없는 한 물 빼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

*출처 : 장성군



신안군, 1004섬 신안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사업비 30억 확보'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2020~2021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신안군에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가 설치되면 320여 잔류농약 사전분석으로 신안군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농가 불안감이 해소되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해당 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 0.01mg/kg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한 제도다.
-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사업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보호와 푸드플랜 정책 안전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전국 35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2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출처 : 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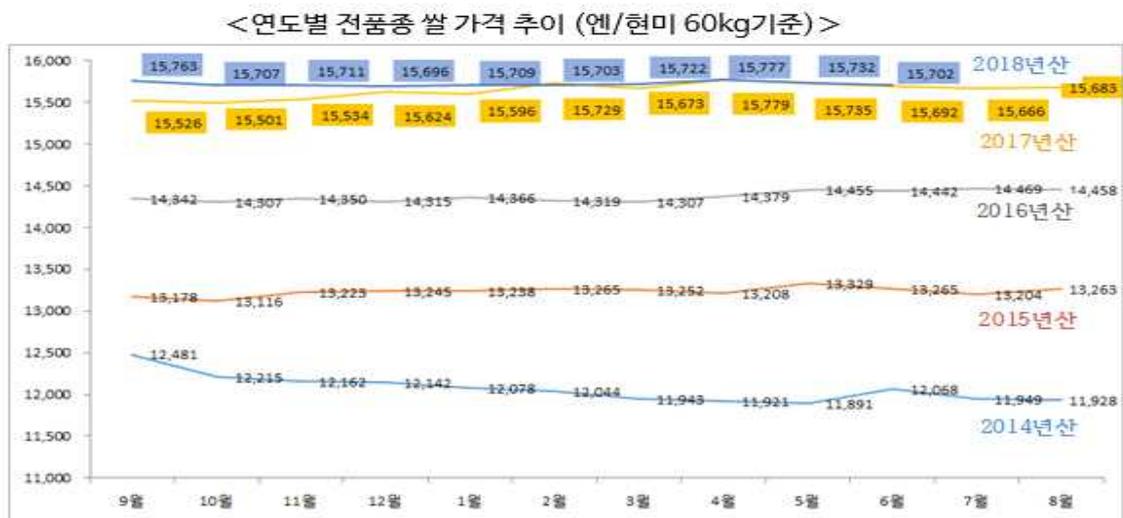
일본, 1세대당 구매량 감소하나 구매가격은 지속 상승

- 2018년산 쌀은 생산조정이 폐지되었으나, 주식용 쌀 생산량은 증가 없이 4년 연속 고가로 스타트 했으나, 쌀 소비부진으로 가격은 전년 수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출산율 저하, 고령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집에서 취사 기회 감소, 식생활의 다양화가 더해져 가정내 쌀 소비는 축소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1세대당 쌀 구입수량은 매년 지속감소, 구입가격은 2015년부터 지속 상승
 - * 1세대당 쌀 구입량 : (11년) 80.58kg → (14년) 73.05kg → (18년) 65.75kg
 - * 1세대당 쌀 구입가격 : (15년) 331엔/kg → (17년) 352엔/kg → (18년) 370엔/kg

<연도별 1세대당 연간 쌀 구매수량 및 구입가격>



- 쌀 상대거래가격 전품종 평균가격 추이 (단위 : 엔/현미 60kg)
 - 산지 쪽을 보게 되면 고가격대의 브랜드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니즈가 높은 업무용 저가격 쌀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으로 매년 쌀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 평균가격 : (14년산) 12,069엔/60kg → (16년산) 14,376엔/60kg → (18년산) 15,722엔/60kg



- 시사점 -

- 일본도 매년 한국과 유사하게 가구당 쌀 소비량은 지속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매량이 적다보니 브랜드 쌀 등 고급수요로 연결되어 쌀 구입가격은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쌀 가격이 일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 브랜드 쌀, 기능성을 가진 쌀 생산을 통해 줄어드는 수요에 대비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날씨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6% 상승했다. 겨울 밀 선물가격은 국제 수요 증가, 미국 북부 평원의 곡물 품질에 대한 우려, 캐나다와 호주의 날씨 문제에 대한 우려 속에 금요일 기술적 반등을 연장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3%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월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곡물 재고량 보고서에 앞서 거래자들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기술매도로 인해 하락했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6%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월요일 미국 곡물 재고 보고서를 앞두고 거래자들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기술판매로 인해 하락했다. 거래자들은 세계 최고 구매자인 중국이 최근 미국산 대두를 많이 사들이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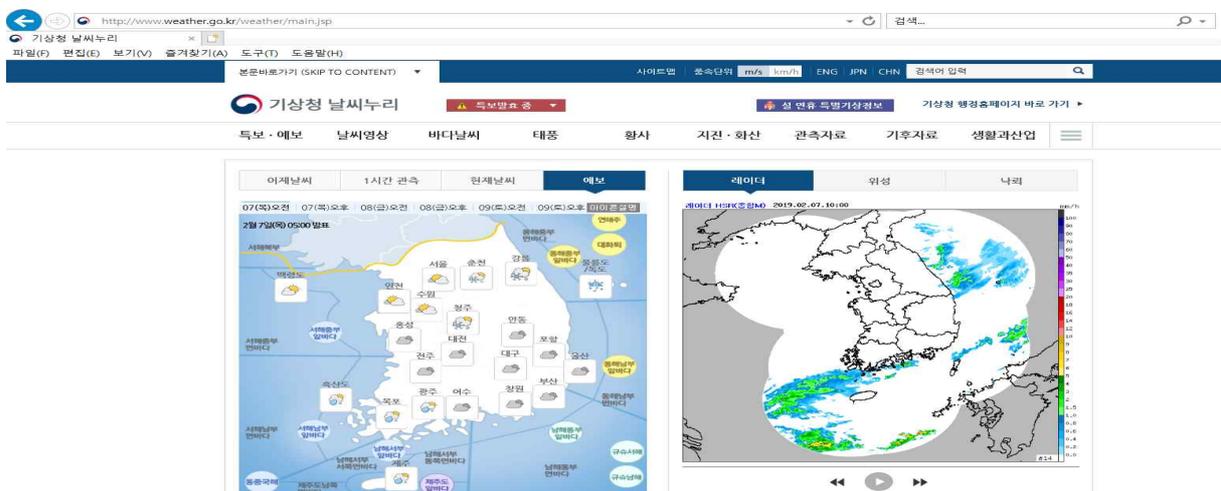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기상청 날씨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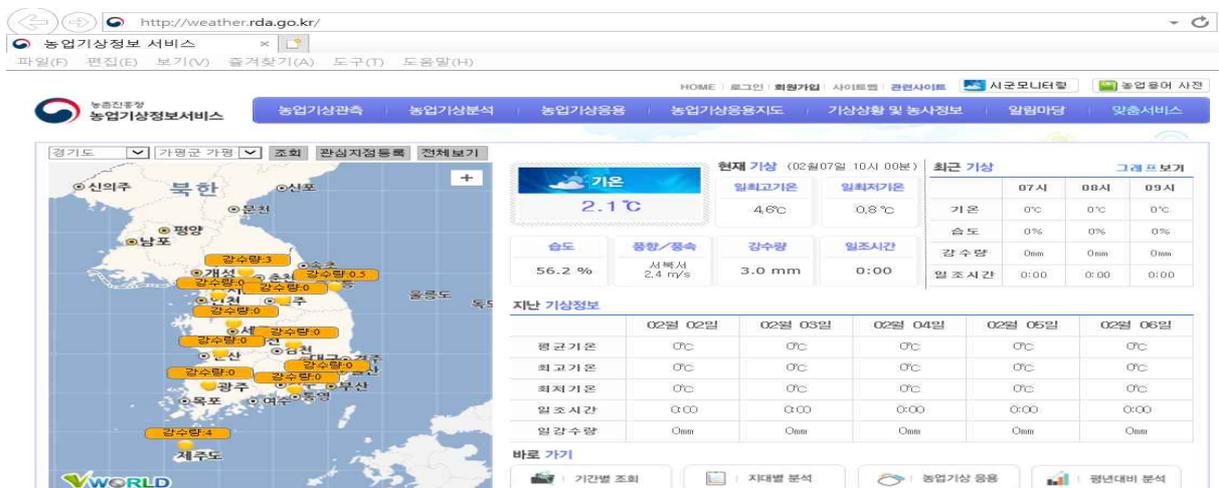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날씨정보는 기상청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상청날씨누리에서는 특보·예보, 날씨영상, 바다 날씨, 태풍, 황사, 지진·화산, 관측자료, 기후자료, 생활과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특보·예보에서는 특보·정보, 육상정보, 해상예보, 북한예보, 테마예보, 공항예보, 엘니뇨·라니냐, 예보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날씨영상에서는 레이더, 위성, 낙뢰, 일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다날씨는 현재 바다날씨, 해상예보, 해상수치예측일기도, 해양기상방송, 월별 해양기상도 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풍은 태풍정보(통보문, 태풍상세정보, 모델예측)와 참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황사는 황사/부유분진 관측 값, 황사/부유분진 관측 그래프, 모델예측, 지상일기도, 위성영상, 황사관측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간농업정보에서는 특보·예보 > 육상정보 > 중기예보(10일 예보) > 전라남·북도 > 최저/최고기온의 자료와 기후자료 > 국내기후자료 > 평년값자료(30년)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

- 농사에 필요한 날씨정보는 농업기상정보서비스(www.weather.rd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 농업기상정보서비스에서는 농업기상관측, 농업기상분석, 농업기상응용, 농업기상응용지도, 기상상황 및 농사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 농업기상관측에서 농업기상은 관측지점별 관측일시별로 기온, 습도, 풍향, 평균풍속, 일 순간최대풍속, 강수량, 일조시간, 토양수분이 확인가능하고 방재기상은 관측지점으로 기온, 습도, 풍향, 풍속, 시간강수량, 일 강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기상분석에서는 지점·지대·농작물 주산지별로 구분되어 연월일 기간별로 기온, 강수량 등을 수치자료와 그래프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기상응용에서는 지점별·지대별로 일교차, 누적온도, 누적강수량, 생장도일, 온량지수, 기후생산력지수(벼)를 관측지점과 관측일시로 수치자료와 그래프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기상응용지도에서는 기상특보, 재해지도, 재배적지(토양,기후), 토양수분센터 미래기후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상상황 및 농사정보에서는 농업기상현황 및 전망, 주간농사정보, 농작물병해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멧돼지 좀 쫓아줘요



멧돼지 좀 쫓아 줘요!!



멧돼지가 고구마 밭과 땅콩 밭 농작물을 다 파헤쳐서 피해가 많아요!!



실제 피해 사례를 접하게 되니 그 피해정도가 체감이 되네



농사에 일손이 많이 가는데 멧돼지 쫓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가 없어

군청에서는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만 해결 방법이 없고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래요



민원접수 절차조차도 불편함이 있고요 농민들에게는 농작물이 자식과 같는데 이렇게 손실을 입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환경부에 민원인의 사정을 전달합니다.

현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생물 더불어 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장수군 담당자와 통화하여 현장 확인 및 민원인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토록 요청 하겠습니다

장수군 담당자와 통화하여 현장 확인 및 민원인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토록 요청 하겠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가 해결이 잘 되었는지요?

아직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뚜렷한 방법이나 대책은 없어요

민원인의 한숨 섞인 말썹을 들으면서 인간의 재해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연구하여, 농민들이 재해의 피해로부터 시름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52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